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신설

2021년도 2학기 첫 신입생 모집
대학원 과정… 불교학술원 주관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취득 가능
불교·사회 경영전문가 양성 기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전경. 동국대는 불교학술원의 주관으로 일반대학원 내에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를 신설 · 운영한다.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불교 · 사회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을 신설한다.

동국대는 "일반대학원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Department of Buddhist Business)를 신설하고 2021년도 2학기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5월 4일 밝혔다.

일반대학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불교와 사회의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정규 석 · 박사 학위 과정으로, 주관 기관은 불교학술원이다.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불교의 사상과 현대의 경영기법을 통섭하여 불교교단과 사회조직에 적합한 경영의 원리와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분과다.

불교학술원은 "보편 철학인 불교학을 토대로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등 학문 간 연구를 융합함으로써 불교 교단 내적으로는 조직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와 함께 현실 포교에 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종단과 사찰의 경영자를 양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교교단 외적으로는 경영 일선에 있는 기업체나 비영리 조직에 불교적 소양을 지닌 사회적 리더를 배출하자는 취지가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학과 신설에 적극 앞장선 불교학술원장 불영 자광 스님은 "부처님께서 '정법에 따라 경영하고 소통하며 열심히 재산을 모으되 절대로 그것에 집착하지는 말라' 고 하셨다"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계 변화와 중생제도에 환원할 것을 당부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현대불교의 경영지도자, 현대경영의 불교지도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 재정 전문가, 사회와 불교의 비즈니스 지도자를 양성하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종단과 사찰의 경영 방안, 인간 중심의 조직경영원리를 연구할 것"이라며 "불교기반의 경영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트렌드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관기관인 불교학술원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를 불교교단에서 필요시되는 사업 능력 제고와 일반사회가 요청하는 인간 중심의 기업경영철학을 아우르는 특화된 교과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공통 토대 교과를 비롯하여 불교학 전문 교과, 경영학 전문 교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전문 교과로 구성한 학제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불교학의 인간불교 사상, 경영학의 조직 · 재무 · 인사관리 능력,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의 화쟁적 소통이 융화된 교과목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불교학술원은 "국내 대학에서 최초로 개설된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불교종단의 교역직 스님, 불자 경영인 및 불교활동가, 불교최고위과정과 사찰경영전문CEO과정 수료생, 불교융합 분야 학문후속세대 등 불교계 인재뿐 아니라 NGO 및 NPO 활동가, 방송 · 언론인, 출판인이나 불교 외부의 사회 리더들에게도 학문적 만족과 사회적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반전형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10일부터 18일까지며, 특별전형은 7월 5일부터 16일까지이다. 원서는 인터넷(www.uwayapply.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계종 승려(구족계 수지자)는 수업료 65%가 감면되는 건학이념구현장학 혜택을 받는다.

동국대 전자불전硏, 예산 법륜사와 MOU

법륜사 소장 사진 DB화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진명, 이하 전자불전연구소)와 예산 법륜사(주지 보명)이 근현대 불교문화 기록사진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예산 법륜사와 전자불전연구소는 4월 19일 법륜사 경내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륜사 주지 보명 스님과 황산준 전자불전연구소 교수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자불전연구소는 법륜사 주지이자 충남 무형문화재 제40호 내포영산대재 보유자 보명 스님이 소장한 근현대 불교문화관련 기록사진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황상준 교수의 사전 조사에 의하여 진행된 사업은 업무협약에 따라 만공(滿空, 1871~1946) 스님과 불연이 깊은 법륜사 창건주 법인(法印, 1903~1986) 스님의 인화사진 자료와 현 주지 보명 스님이 소장한 불교의식 및 내포영산대재 관련 사진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된다. 주요 사진자료는 1930년대 만공 스님 관련 인화사진과 1930년대부터 1950년대의 불교행사 관련 사진자료다.

황상준 교수는 "수덕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당시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 법륜사에서 집전한 불교의식 사진을 비롯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암산 마애불 백의관세음보살상의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 수암산 굴바위절 법륜사의 굴법당 사진 등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토대연구팀은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 사상과 종교를 투영하고 있는 사진을 수집 및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키워드를 통한 검색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예산 법륜사 주지 보명 스님(사진 왼쪽)과 황상준 전자불전연구소 교수(사진 오른쪽)가 4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4회 성운학술상 우수상 서정원·강지언 박사 수상

한국불교 염불신앙에 대한 학술 연구 장려를 위해 제정된 제4회 성운학술상 우수상 수상자로 서정원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와 강지언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이 각각 수상했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은 제4회 성운학술상 선정결과를 5월 4일 발표했다. 우수상 수상자로는 서정원 박사와 강지언 박사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김성순 동국대 HK연구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경오 스님 ·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 · 황상준 동국대 불교문화콘텐츠전자불전연구소 연구교수 · 명계환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소정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5월 14일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동남아불교 · 사찰 전적 등 주제 '다채'

불교학계, 춘계학술대회 개최 잇달아

불교학계가 봄을 맞아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은 5월 15일 '동남아 지역의 대승불교 양상과 해양 실크로드' 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줌 방식으로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심재관 상지대 교수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승불교 연구 동향' 을,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고대 태국 드와라와띠 문화와 동남아 대승불교' 를, 계미향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연구원이 '구법승 통해 본 동남아 대승불교' 등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안환기(서울불교대), 한상희(경북대), 김한상(한국외대), 옹지인(부산외대) 등이 참여한다.

주제 발표 전에는 딴툿우 동국대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미얀마 민주화 항쟁의 전개 양상과 향후 전망' 에 대해 특별강연을 하며, 학회 차원의 미얀마 민주화 운동지지 선언문도 발표될 예정이다.

사찰 전래 전적들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강진 백련사(주지 보각)은 '백련사 전래 전적에 대한 서지 및 사상적 연구'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남권희 경북대 명예교수와 안휘섭 경북대 연구원이 '〈천태삼대부보주〉와 〈석가여래행적송〉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를, 석혜영 경북대 BK21 연구원이 '백련사 전래의 진정국사 〈호산록〉에 대한 연구' 를, 서강선 부산대 교수가 〈만덕사지〉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발표한다.

박용진 국민대 교수는 '고려후기 백련사와 법화삼매참 불서에 관한 연구' 를 박장승 · 최기척 경북대 연구원은 '백련사 주석 승려들의 찬술문헌에 대한 연구' 를, 권오덕 한국국학진흥원 박사는 '강진 백련사 관련 시문(詩文) 분석' 을 전재동 한국전적문화재연구소 박사는 '조선 후기 영남문인들의 백련사단 결성과 활동' 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백련사 주지 보각 스님은 "백련사가 간직한 과거 1000년의 역사와 사상, 전승 문화를 미래의 1000년으로 이끌어 나갈 토대를 마련하고자 준비한 자리"라면서 "만덕산 백련사 관련 문헌들에 대한 서지학 및 사상적 전승 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고견과 제언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은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2-구산선문 톺아보기' 를 주제로 5월 14일 동국대 동국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5월 15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비대면 명상 및 상담 실천 방법' 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줌 바식으로 진행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계 자살인식 개선방안 논의

동국대, 7일 자살인식 개선 세미나 개최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자살인식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국대 생사문화산업연구소(소장 신성현)는 5월 7일 교내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의 자살인식 개선 방안 고찰과 실천방안'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성현 동국대 생사문화산업연구소장의 '불교계 자살인식 개선방안 고찰' 을 시작으로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이 '불교계 자살예방 사업 방안' 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자살유가족과 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위로와 회복을 위한 종교예식 시행, 차명상 자조모임 개최, 템플스테이 등 생명지킴이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그동안 종교적 교리로 인해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에 무관심하던 종교계는 생명을 중시하는 28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생명운동연대(상임대표 조성철)와 힘을 합쳐 3월 25일을 '생명존중의 날'로 선포한 바 있다. 이어 7대 종단은 한국종교인연대(상임대표 김대선)를 중심으로 각 종교별로 '자살은 사회적 책임, 우리 함께 나서자' 는 기치 하에 자살예방 실천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종교계, 학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생명운동포럼은 동국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불교계 세미나를 시작으로 종교계별로 연속해서 10회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각 세미나 장소에서는 지난 '생명존중의 날' 부터 시작된 30,000명 생명존중 서약식도 SNS 서약과 함께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생명운동연대 관계자는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은 생명존중에 대한 종교인들의 사명을 다하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며 "자살이 줄어드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성민 기자